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육성 정책 추진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등 농축산 가구 및 시민 행복 높여

인천시가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민의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네 가지 농축산업 육성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농가 경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병해충·가축전염병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농축산 가구는 물론 나아가 시민의 행복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인천시는 올해 △복지 농촌 구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인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 추진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미래 농업인 육성을 확대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업인 1만6800여 명에게 연 6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을 선정해 영농 정착지원금(3년간 월 최대 110만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역 농식품 판로를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등 지속적 투자 확대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캐나다 토론토에 상설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마케팅·물류 개선 등을 지원하는 수출 선도조직(2개소)을 육성해 중소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 품목도 농산물(강화쌀)에서 농수특산물 가공품으로 확대한다.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확충,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

하며 농업재해 예방 사업, 농업재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구매 환경도 조성한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우브랜드 육성, 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지역 특화 축산사업 육성과 친환경 축산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정희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축산업을 육성해 농업인과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안테나

중구 영종동 주민자치회, 수강생 간담회



중구 영종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9일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식당에서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강사, 프로그램 수강생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강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의 사기를 북돋움은 물론 지난해 인천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전무용팀을 격려했다. 또한 올해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정국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영종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이바지한 강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안종삼 기자

공공건설 참가 희망 지역업체 돕는다

인천시,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 50억 이상 공사 참가 희망 기업 하도급 시장 참여할 기회 확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22일 본부 회의실에서 올해 공공건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본부는 이날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와 만나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실질적인 하도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해 지역업체 수수율을 분석해 보면 인천시의 지난해 지역업체 수수금액은 전체 발주금액의 71%로 인천시 조례에서 권장하는 기준(70% 이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하도급에 있어 공사에 참가하는 지역업체 수는 전체 참가업체의 56.3%로 더 많은 지역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부는 올해부터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직후 발주처·전문협회·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22일 본부 회의실에서 올해 공공건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인천시)

원도급사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지역업체의 기술력·가격경쟁력·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세일즈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의 하도급 시장 참여 기회를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

고, 원도급 수수를 비롯한 하도급 수수 시 철저한 시공, 신속한 하자 관리로 지역업체의 신뢰성과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허홍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종삼 기자

계양청소년문화의집 '청사진' 참가자 모집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계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2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사진' 참가자를 모집한다.

제2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사진'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사회 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어주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도 다양한 청소년 참여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정기(임시) 회의 △상·하반기 기관장 간담회 △모니터링 활동 △연합 교류 활동 △기획 활동(특화사업) △소통 창구 건의함 운영 등이 있다. 모집 대상은 지역 11~24세 청소년 20명 내외로 다음달 17일까지 온라인 참가신청서(유티 코드)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사진'의 활동 혜택은 △다양한 전문교육 기회 제공 △대외적 청소년 활동 우선 참가 기회 부여 △우수활동 위원 표창과 시상 추천 △관련 활동 참여 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등이 있다.

계양청소년문화의집 담당자는 “지난 1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대표 청소년으로서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활동들을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추진



연수구가 깨끗한 도시미관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비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수구는 89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특히 연수구는 주말 및 공휴일 등에도 공백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순회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이 난무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비용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는 물론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기자

남동구, 소규모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남동구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위해 3억9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추가 설치비용 지원,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지원, 산업용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비용 지원, 미세먼지 다량 발생 보일러·건조시설의 연료전환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총 4개 분야다.

지원대상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기술사 등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종합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총 3년 이내에 설치했다가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8일까지 남동구에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되고 지원한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낮은 처리효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방지시설 교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식 기자

'청소년 정책 공로 대상' 수상자 선정

청소년들 건강 성장에 기여한 이봉락·유경희·정종혁 시의원 인천 청소년 직접 투표로 뽑아

인천시와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원하는 인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인천시 의회 이봉락 제1부의장, 유경희·정종혁 시의원을 '청소년 정책 공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청소년 정책 공로대상'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정치인을 대상으로 매해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투표해 선정한다. 인천지역 청소년참여위원 110명이 지난 1년간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후보자별 투표를 거쳐 최종 3인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명은 청소년 관련 조례

제 개정 및 권리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날 인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우(교3) 학생은 직접 인천시의회 의원실에 방문해 공로패를 전달하면서 그동안 청소년 정책에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시의회 이봉락 제1부의장과 유경희·정종혁 의원은 “청소년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인천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연결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을 대표하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종삼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교육 강화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나서 이사비·대출이자 등도 지원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최근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안'과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이 각각 의원 발의됐다.

피해임차인 지원 조례안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인·공인중개사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본 시민을 돕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법률상담,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월세·이사비·대출이자 지원 등을 인천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하도록 했다.

단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비슷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천 초·중·고교에서 부동산·주거권에 대한 지식을 청소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 조례를 근거로 부동산 교육 시행을 결정하면 표준교안과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고 일선 학교장이 실정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들 조례안을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시의 전세사기 실태 조사 결과 총 2969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단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경제 유예기간이 끝나면 지원 신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삼 기자

치매노인 실종예방 서비스 체계 구축

동구, 첨단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종예방 서비스 시연회 개최

동구가 '인천 최초'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치매노인, 어린이 실종에 대한 예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노약자의 실종예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3년간 인천지역 실종자 신고 건수는 8132건이다. 이중 아동이 54.5%, 치매질환자가 25.7%, 장애인 19.8%이다. 실종된 연도에 발견하지 못한

장기 실종자는 24명에 달한다. 실종예방서비스 도입 전에는 경찰이 탐문 수사를 하고 수작업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실종자를 탐색했다.

인공지능을 도입한 영상 분석으로 실종자 탐색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해진다. 실종 예방서비스는 CCTV 영상에 포착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실종자의 복장이나 특징을 인공지능이 분석한 뒤 실종자 정보와 대조해 시간별 위치를 관찰 경찰서에 제공한다.

구와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실종자를 추적할 수 있다. 동구는 지난 18일 김찬진 구청장, 중부경찰서장 등이 참석하는 실종예방서비스 기능 시연회를 개최하고 시범 운영을 '인천 최초'



동구가 '인천 최초'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치매노인, 어린이 실종에 대한 예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사진=동구)

로 시작했다.

동구청과 인천시·중부경찰서는 실종예방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난해 1월 사업을 시작해 같은해 12월 완료했다. 동구 등은 실종예방서비스를 통해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장기 실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와 유관기관의 많은 노력 끝에 '인천 최초'로 어린이와 치매질환자 등에 대한 실종예방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주민 모두가 잘사는 '안전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원도심 동구를 스마트도시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